

4·25 재보선 D-1... 정국 향배는?

범여 통합 탄력이나 한 내홍 격화나

민심 풍향계... 대선 정국 후폭풍 예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5 재·보궐 선거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4·25 재·보선 결과는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정국 풍향계' 성격을 띠고 있어 추후 대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현재 각 당의 막판 판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김홍업 후보가 무안·신안에서, 한나라당 고희선 후보가 경기 화성에서,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대전 서울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김홍업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호남 영향력을 내세우며 김심(金心)을 엮고 지지부진한 통합작업의 주도권 잡기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김홍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의 행보는 곧 DJ의 정계개편에 대한 방향 계사로 읽히면서 추후 대통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김홍업 후보가 낙선한다면 당력을 총동원했던 민주당은 추후 정국에서 상당한 곤경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DJ와 민주당의 호남 장악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추후 정계 개편 및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이 주

도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대전 서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도 조미의 관심사다. 현재까지 우세한 판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승리한다면 이는 12월 대선의 '캐스팅 보트'인 충청 민심이 확인되면서 한나라당은 약세로, 범여권에는 호재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충청 민심 공략에 다시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선거 유세에 나섰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여권에는 '몽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범여권 대통령의 움직임에 탄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이재선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다면 충청 민심까지 장악한 한나라당의 우세 국면은 다시 상승세를 타는 반면, 범여권에는 대선 패배의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이합집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화성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 속에서 열린우리당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유일하게 후보를 내 경기도 화성에서 큰 격차로 패할 경우 정치권 안팎의 강력한 통합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인 23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에서 민주노동당 출마의원 대리인과 무소속 출마자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후보 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등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盧대통령 때리기 재개

대선자금 전면 재수사 촉구

범여권 "정치공세"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에 한나라당의 10분의 2, 3 정도 됐다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 이후 정국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범여권 차원의 진상파악과 함께 필요시 국정조사 내지 특별검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한 반면,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모임 등 범여권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이 같은 강경 배경에는 본격적인 대선국면을 앞두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한반도 화해부드 등의 호재를 엮고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노 대통령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여당으로서 불법 대선자금의 공조책임이 있는 열린우리당이 아직까지 불법자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범여권의 통합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대선 뿐 아니라 이번 재보선에서도 일정 정도 반사이익을 누리려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를 중지했던 송 전 총장이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한나라당의 10분의 2 내지 3까지 했으며, 당시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론까지 거론했다'고 증언했다"면서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가 은폐,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총장의 고백은 그간 대통령 발인과 배치되는 것으로 엄청난 과장

이 예상된다"면서 "노 대통령은 정확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하며, 불법 대선자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우리당과, 우리당 탈당과 의원들은 어떻게 갚고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송 전 총장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오는 25일 법사위를 소집, 법무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자는 법사위 소집 요청서를 이날 공식 제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서해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송 전 총장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한나라당이 국조,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우리당을 흠집내려는 시도"라면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당·경제인단 내달초 방북

親盧의원 포함 10여명 될 듯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는 지난달 초 이해찬 전 총리의 평양방문에 이어 다음달 초 경제인들과 함께 지·비료·식량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번 방북의 목표라는 설명이다.

김혁규 의원은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국내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입장에서 북경제계에서는 손익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원창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이 참여해 모두 1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북 일정이나 의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특구의 확대나 에너지·비료·식량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번 방북의 목표라는 설명이다.

김혁규 의원은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국내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입장에서 북경제계에서는 손익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원창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이 참여해 모두 1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북단은 우리당 내 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방북기간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치적인 문제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이번 방북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18~21일 방정환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화영 의원은 이날 "현지에서 실무자급을 만났는데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조치를 팔목말한 진전이라고 느낀 우리 입장과 달리 북한은 좀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첫날 대선 예비후보 14명 등록

이명박 27일, 박근혜 내달초 등록

17대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둔 23일 제헌적 선거관련 활동이 허용되는 예비후보에 대한 등록이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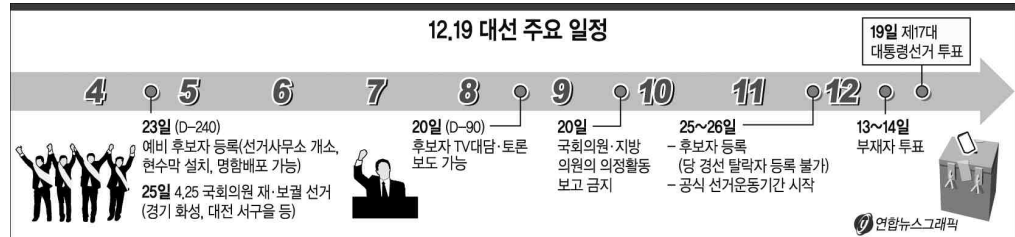
정치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등록시기를 저물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각각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중앙선관위를 통해 공식 등록 절차를 마쳤다.

또 서상목(한나라당), 허경영(열린우리당), 최용기(시민당), 최상민, 임천규, 안광양, 정한성, 이나경, 조화환, 박노일, 김성부, 하종국(이상 무소속)씨 등 이날 하루 동안 모두 1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대선 예비후보 등록 제도는 정치 신인과 무소속, 군소정당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이점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말이나 내달 초로 등록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종로구 견지동 '안국포럼' 사무실의



사무실의

여의도이전 완료되는 오는 27, 28일 직후 사무실 개소식과 출마선언, 후보등록을 한꺼번에 치를 예정이고, 박 전 대표는 당내 경선후보 등록일에 맞춰 5월초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특히 손학규 전 경기지사, 열린우리당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과 한명숙 전 총리, 김혁규 의원,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 예비주자들은 등록을 훨씬 뒤로 미루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의도이전 완료되는 오는 27, 28일 직후 사무실 개소식과 출마선언, 후보등록을 한꺼번에 치를 예정이고, 박 전 대표는 당내 경선후보 등록일에 맞춰 5월초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특히 손학규 전 경기지사, 열린우리당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과 한명숙 전 총리, 김혁규 의원,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 예비주자들은 등록을 훨씬 뒤로 미루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북·미·중 4개국 정상급 회담체 필요"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23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한 이번 한미도평화 국민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 해법으로 6자회담 틀을 지속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개국 회담체를 만들어낼 필

요가 있다"면서 "회담체는 4개국 정상급이 만나 원칙을 확정하고 장관급 회담에서 이행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한 후 정상들이 만나 승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4개국 회담체는 6자회담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요가 있다"면서 "회담체는 4개국 정상급이 만나 원칙을 확정하고 장관급 회담에서 이행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한 후 정상들이 만나 승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4개국 회담체는 6자회담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등록번호 616-81-11280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주세요!

제주도 여행 2박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재예술했,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출발 "목카투어" 78,000원
*일정-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출발-홍델박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등반-홍델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30)출발 (단, 일요일은 16:30출발)
*출발일: 매일출발(단, 토요일은 제외)
*토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고흥(죽동)출발 "죽동투어" 78,000원
*일정- 1일째: 녹동 남해고속터미널(10시)출발-홍델박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홍델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8:00)출발
*출발일: 매일출발(단, 금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토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59,000원(주중+주중) 169,000원(주중+주말)
★렌트카 파격할인★ 전차중 75% 할인 ※네비게이션 포함

2박3일 항공골프투어 369,000원
일요일 출발 기준(양주 오전 출발, 제주 서시(40분)출발)
*포함내역: 왕복항공, 관광호텔 2박, 조식 2회, 그린피 2회(36홀)1인용차량 2일

1박2일 항공골프투어 379,000원
월·화·수 출발 기준(양주 오전 출발, 제주 오후 출발)
*포함내역: 왕복항공, 관광호텔 1박, 조식 1회, 그린피 2회(36홀)1인용차량 2일

오른기름: 해저탐험 잠수함관광을 원하시면 49,500 = 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한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요금 적용)

조흥은행 708-01-074067 제주무궁화관광

문의: ☎064-744-1109 www.jeju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협찬: 씨월드고속해리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품질은 100% 가격은 80%

◆배터리닥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운가요?
배터리 성능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충전 불량이나 수명감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판에 생긴 황산염 때문입니다. 배터리 닥터는 프로뱃(Probat)과 프로차지(Procharge)라는 최첨단 과학으로 황산염을 제거하고 성능을 억제함으로써 폐배터리를 새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적용범위
자동차 및 물류 배송센터

◆배터리 닥터, 그럼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버스, 택시, 트럭, 골프카트, 지게차, 견인차, 청소차, 운반차, 공항 및 선박, 물류센터, 자동창고, 백화점등 전동경비,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 교체비용이 드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불황기에 배터리 값만 아껴도 회사 살림이 확 됩니다. 지금 배터리닥터를 만나 보십시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껴 드리겠습니다.

◆주요실적
■현대자동차, 삼성전자(탕정공장), 한국 BASF, 호남석유화학 전동지게차 현장투입의 108개 업체 현장투입 기동중

bd (주)배터리닥터 BATTERY DOCTOR www.batterydoctor.com
총판 모집 전남·전북
상담전화 02)3664-1066